

NEWS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정부, '위기의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

7월 호우 피해액, 1조 넘어
중대본 "최근 10년 중 최대"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1조848억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로는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심의를 통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556ha(헥타르·1ha는 1만㎡), 농경지 1447ha, 가축 약 186만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화전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이 피해를 봤다.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1조848억원)은 최근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1위다. 2위는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호우(피해액 1조371억원·복구액 3조4277억원), 3위는 2023년 6월 27일~7월 27일 호우(피해액 7513억원·복구액 1조7130억원)다.

이번 호우 피해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공공시설 복구에 2조4538억원이 투입된다. 피해가 경미한 시설의 단순 기능 복구에 1조3520억원을 쓰고, 피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의 방재 성능 개선에 1조1018억원을 사용한다.

복구비 중 나머지 2697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쓰인다.

전파 주택의 경우 기존 정부 지원금(2200만원~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풍수에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배·장판, 가전제품·가재도구 지원 비용은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배로 늘린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피해 정도와 작물의 특성에 따라 최대 11개월분까지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 10종(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시금치)와 산림작물 8종(뽕나무·고사리·약용류·조경수·잔디·약초류·포고자목·포고배지)에 대한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은 종전 50%에서 100%로 높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달 대책 발표...자금·금융·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기업별 사업조정·M&A 일정·공정거래법 완화 '주목'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 나선다.

기업 간, 기업 내 자발적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을 짜고, 구조 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금융, 자금, 세제 등 지원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업계와 최종 조율

에 들어갔다. 늦어도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중국 등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3~4년째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며 추가 출자, 유상증자와 같은 긴급 수혈을 받아 등 풍전등화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기

도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영역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이익과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불황이 이어진다면 3년 뒤에는 기업의 절반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작년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BCG그룹 보고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당사자인 기업들이 각자 중장기 사업계획과 손익계산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등 '결단'을 내리면, 사업 재편이 신속히 이

뤄지도록 정부가 각종 제도·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위기에 대응해 최근 LG화학이 대산·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스티렌모노머(SM)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주 공장 알코올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이 대산 에틸렌 글리콜(EG) 2공장을 비우고, 여수산단 내 2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정

부도 각종 지원책을 정리했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과거 일본이 1980년대 오일쇼크 여파로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M&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 유예한 것을 참고해 업계 요구 사항인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도 대책에 포함할지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조생벼 수확이 한창인 고흥군 포두면 들녘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벼 작황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지사, 농업인과 현장 소통·수확 기쁨 나눈다

고흥서 한국쌀전업농 간담회·조생벼 올해 첫 수확 시연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고흥 포두면을 방문해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 시군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조생벼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실질적인 농정 지원을 약속했다.

포두면에서 열린 쌀전업농 간담회에선 쌀 산업의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쌀전업농 회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는 전남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에 감사의 뜻을 담아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 생산 과잉, 소비 감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촌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지만, 최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조생벼 수확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송형곤·박선준 전남도의원, 신정호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

합회장과 시군회장단, 김중권 전남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콤바인을 직접 운전하면서 벼 수확 시연에 참여하고, 농업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 "올해도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결실을 본 농업인에게 감사드리다"며 "풍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품질 쌀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전남 쌀의 유통과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도시홍수 대응 토론회 국회서 연다

광주 도심폭우피해 원인분석·재난대처 개선안 모색

지난달과 이달 초 광주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의 원인을 파헤쳐보고 효율적인 재난 대처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사진)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연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민 의원을 비롯해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살펴 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환경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대심도 빗물터널'과 같은 초대형 인프라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 자연 기반해법, 도심 물관리 인프라 개선,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인 해법

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윤희철 한국지속가능센터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또 '자연기반해법의 침수 대응 전략'에 대해 권경호(주)스토피터바이오 대표가, '광주형 물순환 도시를 위한 계획·제도 개선'에 대해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과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좌장을 맡고 김민환 호남대 토목공학부 교수, 안해근 한국환경경제연구원 소장,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 김이형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가 패널 토론을 벌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제농업박람회 자원봉사자 내달 30일까지 모집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5국제농업박람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박람회 기간인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박람회장 환경정비, 매표소 검토, 관람객 동선 안내, 주차장 관리

등 박람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총 420명을 모집하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시간은 1일 4시간으로 제한해 오전 30명, 오후 3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1365자원봉사자 포털에 접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차오름 (유) 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dn@naver.com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